

성시신문 Magazine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기획특집

“다음세대”의 작은 성지
감동을 주는 신앙인
현대산업과 외식산업의 성경적 의미

특집

(포괄적)차별금지법?
모르면 찬성, 알면 반대!

문화에 빠지다

맛기행 세상에는 맛있는 밥상도 많다.

영화이야기 더 초존 The Chosen : 선택받은 자

영화감상 김복동

건강 여름, 마음과 몸을 지키는 지혜

책속의 책 최윤갑 교수의 ‘모든 슬픈 자들을 위한 위로’
최종원의 거꾸로 읽는 교회 : 익숙한 역사, 낯선 질문을 던지다
부활이 있기에 -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복음 되집기

257

Summer 2025



창간1998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Contents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기획특집

- 03 “다음세대”의 작은 성지 | 최상도 목사
- 06 감동을 주는 신앙인 변춘자 전도사 | 이연희 목사
- 09 환대산업과 외식산업의 성경적 의미 | 박익수 집사

특집

- 11 (포괄적)차별금지법? 모르면 찬성, 알면 반대! | 이관형 권사

문화 | 영화 | 책 FOOD MOVIE BOOK

- 15 맛 기행 세상에는 맛있는 밥상도 많다. | 이관형 권사
- 18 영화이야기 더 초즌 The Chosen : 선택받은 자 | 김춘배 화백
- 20 명화감상 | 김복동
- 21 건강 여름, 마음과 몸을 지키는 지혜 | 이시형 원장
- 22 책 소개 책속의 책 | 박도준 목사



춘천성시화운동후원하기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

춘천성시화운동본부 QR코드 후원참여에 들어가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참여



“다음세대”의 작은 성지

순복음 호두나무교회(표명혁 목사) 편

취재/최상도 목사
(사암교회. 공동편집장)

지난 2022년, 춘천 교동에서 “다음세대” 선교를 위해 개척된 순복음 호두나무교회. 담임자 표명혁 목사는 순복음횡성교회를 섬겼던 표용배 목사의 자녀로 원주에서 나서 자라고, 대학에서 법학,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음세대를 키우고 섬기라”는 특별한 음성과 선교소명을 받았다. “학생, 청년들이 오고 싶은 교회, 은혜롭고 즐겁고 따뜻한 교회,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를 추구하는 춘천의 호두나무교회와 표명혁 목사의 사역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자.

▲ 표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고 호두나무교회를 개척하신지 3년이 채 되지 않으셨네요. 그 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개척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염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동역자들의 협력으로 아름답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 호두나무교회의 특별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주님의 교회가 모두 다 특별하겠습시다만 호두나무교회공동체는 그 가운데에서도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자로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에 집중하여 주일설교를 준비하고요, 예배 시에는 초청된 다음 세대를 위해 매주 영접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설교는 다음 세대의 특징에 맞게 짧고 굵게, 쉽고 재미있게 전하지만 순간 순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청소년, 청년 리더들을 키우는 사역에 집중하였는데 이제는 제법 성숙하여 다음 세대들이 자기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찬양의 영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매주 다른 찬양팀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은혜로운 찬양을 합니다. 신나는 율동시간도 있으며, 예배 중에는 성도 간에 축복을 나누는 시간도 있습니다. 전 성도가 모두 일어나 한 사람씩 만나며 악수도 하고, 안아주며,



서로의 안부와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기성세대에 초점을 맞추지 않자 보니,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주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으로 알고 지금까지 청소년, 청년 등 다음 세대에 대한 초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호두나무교회의 점심식사와 오후프로그램등이 특별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요.

과찬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 소문이 날만 합니다. 교우들과 전국 각지 후원자들의 도움 속에 특급 셰프(?)가 정성껏 만든 요리와 간식이 제공됩니다. 한창 식성이 좋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모였기에 눈과 입이 행복해지는 식사가 되도록 7-8가지가 넘는 뷔페, 고기반찬이 마련됩니다. 사랑 가득한 집밥을 경험할 수 있고, 특급호텔이 부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오후에는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즐거운 성경공부 시간이 이어지며, 1인 1악기 배우기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로 스포츠모임(축구, 족구, 볼링 등)을 하기도 합니

다. 그뿐만 아니라 매주 지속적으로 거리청소, 지역봉사, 명동 버스킹, 그리고 매월 한 차례 전 성도가 함께하는 전도 활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 우리 교회는 단지 듣고 배우는 데에 그치지 않고, 온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평일에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학교기도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토요일 오후에는 말씀훈련을 받습니다. 또, 매일 쓰는 영성일기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며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호두나무교회가 가진 특별한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저의 소박한 꿈은 춘천의 학교 학교마다 학생 중심의 “학교기도모임”과 “기독교아리”를 만드는 꿈입니다. 또한 춘천 명동 중심가에 “청소년 쉼터 카페”를 만드는 꿈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연합수련회”를 방학마다 여는 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 명의 기도의 후원자와 천 명의 재정후원자, 백 명의 봉사후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표 목사와 호두나무교회. 주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교회이기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해 본다.

보석을 예배자로 세우는 변춘자 전도사의 삶과 사역이야기 첫 번째

이연희 목사
(아미교회, 성시신문 편집위원)

보석은 보석을 알아본다. 우리들의 보석은 금광 다이아몬드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귀한 영혼을 조건 없이 보석으로 알아보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사역자 변춘자 전도사님의 아름답고 보배로운 삶을 나누고자 한다. 장애인들과 함께한 삶은 1997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 5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 변춘자 전도사

1. 25살, 첫 발걸음이 사역이 되고 인생이 된, 섬김의 삶

40여 년 전, 따뜻한 물도, 세탁기도 없던 겨울이었다. 아는 동생과 함께 장애인 시설에 봉사활동을 나선 것이 시작이었다. 추운 겨울날, 땀 묻은 빨래들을 찬물에 직접 손으로 빨며 세 시간 동안 봉사를 했다. 누가 시키거나 부탁한 것도 아니었다. 그 첫 발걸음이 사역이 되고, 결국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

TV에서 장애인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생기는 ‘빚진 마음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들과 함께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었고, 이는 경찰 공무원이셨던 부친의 가르침과 생활을 보고 자라며 자연스럽게 스며든 결과이기도 하다. 변 전도사님의 부친께서는 거리의 청소녀를 볼 때마다 집에 데려다 씻기고, 재우고, 당시에 가장 믿을만한 고아원으로 보내 아이들이 편안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곤 하셨다고 한다. 그런 가정환경에서 자란 덕분일까. 주일 예배 후에도 저녁에는 재활원에 가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알고 지내왔다.

의상실을 경영하며 보낸 젊은 시절의 변 전도사님은 외모나 복장을 볼 때, 봉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장애인 기관에서 봉사하며, 교회 내 장애인 부서의 사역자로서 평생을 섬기고 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어 ‘보석을 보석으로 알아보는’, 보석 같은 사역을 하고 계신다.

2. 존재 자체, 사람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관계의 삶

많은 사람들과 달리, 장애인 친구들을 만나면 무장해제가 된다. “조건이나, 학벌, 자격, 신분, 체면, 자존심 같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포장하고, 위장하고, 분장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워져요. 진실하고, 솔직해지고, 꾸밈이 없이 대할 수 있어요”

누군가 앞에서 입었던 체면의 옷, 위선의 옷, 허와 실을 감추었던 포장들을 편안하게 벗을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저 사람과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함을 나누고,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너무도 행복하다고 한다. 이 만남은 ‘무장해제’라는 말이 잘 어울린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계산이 없고 실리를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만나, 존재 그 자체로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귀한 보람이요, 사역의 생명이라고 환한 미소 가득히 말씀하셨다. 서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사람 사이에 계산이 없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서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고 나답게 대하도록 해주는 사람이다.

3. 은둔자를 빛으로, 방치된 자를 예배자로, 함께 하는 삶

2025년 가장 귀한 절기 중 하나인 부활절이 장애인의 날이었고, 장애인 주일로 지켜 장애인 친구들과 헌신예배를 드렸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장애인들의 예배이지만, 모든 교회가 장애인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다. 변 전도사님은 봉사활동으로 익숙해진 장애인들과의 관계를 계기로, 교회의 장애인 부서 예배사역자로 1997년 3월부터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신다. 또한 주중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미술치료사로도 활동하고 계신다.

장애인 예배는 장애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통로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 스스로 예배의 주체가 되며, 동시에 그들의 부모들에게도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랑의 전달자로 제위지며, 예배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함께하게 되는 것이다. 매 주일, 다양한 장애를 가진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고, 장애인들이 삶 속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전도사님은 요한복음 9장 3절을 인용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 서라도 장애인들이 예배드리도록 돕고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장애인 자녀들을 대하는 자세가 전혀 다르다고 한다. 변 전도사님은 또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장애인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고 강조하신다. 장애인은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걸작품이라는 것이다.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장애인을 구분하는 기준도 15가지나 된다. 우리의 정서상 고운 말보다 거북한 단어로 표기하고, 언어 학대와 폭력으로 대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단어로 구분하고, 부르게 되었다.

전도사님은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으로서, 유치원과 초등저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장애인 인권 교육을 하시는 권위 있는 장애인 인권 강사이기도 하다. 또한 교회 유치부 사역을 25년을 역임하셨고, 구역강사로는 30년을 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일대일 교육 강사로도 오래 사역하셨는데, 이 사역 역시 참 즐겁고 기쁜 일이라 장애인 사역을 마친 뒤에는 평생을 교회에서 일대일 양육 사역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봉사하고 싶다고 하셨다.

다음 호에서 전도사님의 구체적인 장애인 사역과 섬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산업과 외식산업의 성경적 의미

박익수 집사

(예담교회, 성시신문 편집위원)

한때 우리는 먹는 시간도 아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온 지도 꽤나 오래되었다. 이러한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붐을 일으킨 것이 바로 전 세계적인 체인망을 기반으로 획일적인 맛과 레시피를 내세우며 세계로 확장된 글로벌 외식산업이다. 1986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맥도널드 1호점이 패스트푸드의 상징으로 개장되어 온 이후, 세계 곳곳에 퍼져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많은 부작용을 인지하게 되었고, 반성적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슬로푸드(slow food)’ 운동이다. 이 운동은 가정식 홈페이지 식사를 중시하는 로마 시민들이 지역의 특색 있는 식자재와 맛을 지키고 전통적인 요리법을 보존하자는 사회 운동적 성격을 지닌다.

고추장, 된장, 김치의 숙성을 기다리는 것처럼 지그시 기다릴 줄 아는 삶의 태도,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자성과 음미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현대적 삶이 속도를 중시하는 것만큼 삶의 중요한 요소임을 자각한 사회적 성찰이며, 오히려 이러한 삶이 인간을 더 건강하게 한다는 전통적 체험에 따른 결론이기도 하다.

슬로푸드 운동은 또한 다국적 식자재 유통 시스템에 저항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오랜 시간 냉동으로 신선함을 잃은 식자재가 장거리 유통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 농산물을 적극 이용하자는 로컬푸드(local food) 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이는 패스트푸드 시대에서 농친, 효율성과 속도에 매몰된 인간 사이의 관계성, 가족 간의 친밀감, 더 나아가 신과의 연결이라는 신성 회복에 이르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과도 닿아있다.

그렇다면 성경시대 사람들은 어떤 식탁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까?

창세기 18장의 이야기이다. 상수리나무 숲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그네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몹시 뜨거운 여름 한낮,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환대하며 절을 올렸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 종의 집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물을 가져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제가 만든 음식으로 원기를 회복하여 길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그는 아내 사라와 통밀로 만든 빵과 송아지고기 요리를 준비하게 하고, 우유와 요구르트를 곁들여 식탁

에 차려 정성껏 대접했다.

용수한 대접을 받은 나그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말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겠다. 그 때는 그대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나그네는 변장한 하나님의 대사, 곧 천사였다. 그리고 그는 복을 내려주셨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아브라함은 장차 크고 강한 민족이 되어, 세상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는 늙은 석녀였던 사라는, 결국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장엄한 사건이자, 식탁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약속이 맺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 일화는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는 유목 문화의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식탁’이 정성껏 손수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선행이 이루어진 곳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레위기 11장에서도 하나님은 신앙인들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셨다. 이는 제의나 의례의 차원을 넘어, 내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 칼로리(열량)와 영양분만을 채우기 위한 먹을거리에 그치지 않음을 뜻한다. 각종 식자재가 물, 햇빛, 바람 같은 기후를 따라 흙에서 자라고, 삼라만상과 교감하며, 우주 질서에 순응하며 비로소 내 식탁에 도달한 거룩한 것임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한 식탁에서 경건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것이다.

신약의 최후의 성만찬 장면(누가복음 22장)에서도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다.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만나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본다. 여기에는 음식을 만들고 나르는(serving)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깊은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앞아서 먹는 자가 큰가, 섬기는 자가 큰가? 너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정리하자면, 이처럼 식탁에서 나그네로 분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고 그분을 섬기는 의식이 예배의 단초가 되었고, 오늘날의 환대산업(hospitality industry)과 외식산업(catering industry)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포괄적)차별금지법? 모르면 찬성, 알면 반대!

이관형 권사
(춘천 한길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정당과 단체 혹은 일부 교회에서는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맞는 얘기다. 게이라든지 레즈비언이라든지 성별 정체성 때문에 사회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되며 서로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은 남녀 성구별을 생물학적이 아닌, 마음에 따라 사회적 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다.

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하나? 그러면 차별을 하자는 뜻인가?

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은 포괄적(동성애, 성전환 등 차별금지사유가 20개 이상)이기에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아래 참고)이 충분히 있기에



필요하면 개정해서 수정, 보완을 하면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먼저 도입한 유럽과 북미는 역차별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오히려 차별을 부추기고 있고 이에 관해 그 어떤 누구도 발언하지 못하게 한다는 끔찍한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 참고) 우리나라 현행 (개별적)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처벌법,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인복지법, 출입국관리법, 국가보훈처법, 학교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결혼이민자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법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진화되면 가정부터 시작하여 사회가 해체된다.

차별금지법을 시행한 유럽에서는 아빠,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혐오단어이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성별이 아닌 생물학적인 성별인 아빠, 엄마로 불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유치원에서도 유아들을 대상으로 나는 남자, 여자라는 성별을 단정하지 못하게 하는 추세다.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이미 4살 이후부터 아동 스스로가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이를 부모가 저지할 경우 공권력이 동원되어 법의 처벌을 받아 감옥에 갈 수 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에 의해 설치한 남녀 구별 없는 성중립화장실과 탈의실에서 성범죄가 대폭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성공회 대학에서도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 완공 중이며 야당에서도 진행하는 중이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현실

- 1) 유치원과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를 조장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동성끼리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자세(항문성교/자위가구이용법) 등을 적나라하게 가르치고 있다.

예) 영국 초등학교에서는 6살 학생들에게 동성에게 청혼편지를 쓰게 한다.

예) 미국에서 수학여행 중 11살 여학생과 트랜스젠더 학생이 같은 방을 배정받아 논란이 되었다.

- 2) 아동 청소년의 성전환과 동성애가 급증하고 있다.

예) 최근 10년간 영국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40배 증가했고, 여자 청소년이 남성이 되려고 유방 절제 수술 받은 비율이 2배 증가(2009년에 77명/ 2019년 2,590명)

예) 스웨덴 여자 청소년 트랜스젠더 10년 동안 15배 급증

예) 현재 미국의 경우 고등학생 4명 중 한 명이 동성애자라고 한다.

- 3) 생물학적 남성이 여탕 출입이 가능

예) 2021년 미국 LA 찜질방에 남성이 나체로 들어감

예) 2023년 미국 시애틀법원은 여탕에 남성 입장을 허용함.

예)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학생이 학교 내 여성 탈의실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다.

이에 학교 당국은 여학생이 남학생 앞에서도 옷 벗는 것이 익숙해지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4)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 출전(2020년 도쿄올림픽, 2024년 파리올림픽 등)

- 예)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여성 격투기(복싱)대회에 출전, 상대편 여성 선수 두개골을 파손함.
- 예) 남성이 자신은 여자라고 주장하며 여성 역도 경기에 출전하여 신기록을 세웠음.
- 예) 남성 수영선수가 성전환 뒤 여자 수영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웠음.



5)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교도소에 수감

- 예) 강간 범죄 경력이 있는 남성이 여성교도소에 수감, 여자 수감자 4명을 성폭행함.
- 예) 미국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트랜스젠더 제소자가 여성 제소자와 성관계를 하여 2명 임신

6) 자녀 성전환을 반대한 부모에게 친권 제한 및 분리 가능

- 예) 부모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 자녀가 성전환을 할 수 있다.
- 예) 자녀의 성전환, 동성애를 반대한 부모를 자녀와 분리 가능케 함.

7) 표현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 예)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과점 사장이 성폭행 위협과 소송에 시달림
- 예) 동성애자를 교회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함

(자료참고: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현재 우리나라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정당과 단체에 의해 교육과 언론이 장악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입법, 사법, 행정부가 인정하여 헌법 이상으로 힘을 갖게 되며,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면 공권력이 동행되어 법정모독죄로 처벌받게 된다.

고린도전서 6: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

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앞으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등 초교파적으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사단이 원하는 멸망의 수순을 밟을 것이 뻔한 일이다. 이에 성도라 불리는 우리가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 다만, 어떤 입장이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표현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안에서 반대 집회를 열어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며 기도회나 금식 운동을 한다/ 교단 간 협력으로 공동 입장문이나 성명을 통해 교계 전체의 의견을 여러 매스컴을 전달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입법 반대 입장을 알리고, 면담이나 공문을 통해 설득하는 등의 입법 대응 활동을 한다/ 신문, 방송, 온라인 언론에 의견을 기고하거나 광고를 통해 반대 논리를 알리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 캠페인을 통해 교계 입장을 홍보하고 여론을 형성해야 하며 아울러 교인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차금법 반대 서명운동 전개해야 한다.

다만,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인권 보호법이다. 따라서 반대할 때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국 학교, 3세 아이에게 동성애와 성전환 가르치지 않아서 학교 폐쇄 위기

<Lifesite> 2017.6. 28.

미국 캘리포니아의 낙태 및 동성애 옹호 교육을 부모가 거부할 수 없다

<Lifesite> 2018. 4. 19.

캐나다 연방대법원, 동성애 반대하는 대학에 대한 로스쿨 불허를 인정

<뉴스앤넷> 2018. 6. 18.

영국에서 성별은 2개라고 말했다가 수업 중에 쫓겨난 학생, 결국 퇴학당함

<Lifesite> 2019.7. 5.

“세상에는 맛있는 밥상도 많다.”

이관형 원장
(자연유치원)

(요즘 우리나라는 요리연구가 겸 방송인이며 더본 코리아의 대표 백종원 때문에 난리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팬데믹 수준의 전례없는 불황에 자영업자들 특히 음식점이 고사 직전인데 ‘뽕햄’ 품질 문제를 시작된 백종원 브랜드는 △실내 조리 공간에 둔 액화석유가스(LPG)통 관련 LPG 법 위반 △ ‘감귤맥주’ 속 감귤 함량 미달 논란 △식품제조시설의 농지법 위반 △농약통에 넣어 고기에 뿌린 사과주스 논란 △원산지 허위 표시 논란 △여직원 술자리 면접 논란 △방송 갑질 의혹 등이 잇따른 결과, 회사 주가 하락은 물론 수많은 가맹점주와 직원들을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했다.(백종원 관련 프랜차이즈 권리금이 예전에는 2억원이었으나 지금은 0원인데도 인수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필자는 일반 분식점 레시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의 요리실력보다는 성실하고 정직해 보이는 그의 후덕한 인상과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에 매료되어 나름 팬이었고 그의 프랜차이즈점인 백종원 원조쌈밥집에 부모님을 자주 모시고 갔고 그 밖의 프랜차이즈점에서 닭발과 치킨, 피자 등을 배달해서 많이 먹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주는 말을 스스로없이 자주하며 자기가 뿌려놓은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이 변명만을 늘어놓는 일관된 행보를 하고 있어 이제 실망스럽다 못해 화가 날 지경이다. 그래서일까? 세상에서는 한마디로 그는 정직한 요리사도 아닌 사업가도 아닌 교만함이 가득찬 사짜 비즈니스맨이라고 한다.

잠언 12:22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서양화 작가이기도 한 필자는 작가들의 작품을 개인전 혹은 그룹전에서 구매, 작품 구매시 요령은 우선 완성도 높은 훌륭한 작품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담없는 가격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도 작가의 인성이나 품행이 좋지 않으면 절대 구매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맛있고 가격이 합당한 음식이라도 백종원이란 인물을 생각하면 이용하고 싶지 않지만 점

주들은 또 무슨 죄인가?하는 생각에 아직까지도 그와 관련된 프렌차이즈점을 이용하고 있다. (며칠 전에 들린 떡다방 안 백종원 포스터 얼굴에 누군가가 검은색 테이프로 가려 놓았다.)

지난해 필자도 오랫동안 정을 나눈 몇몇 사람으로부터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당해 결별한 적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화가 난 이유는 내 나이가 곧 육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 하나 분별을 못 한다는 내 미련함에 대해 더 실망했고 그 대상이 일반인도 있지만 목회자도 있어 더 속상했다.

그리고 보니 몇 년 전 많은 성도들로 부터 존경받았던 어느 목사님이 은퇴식을 앞두고 결국엔 퇴직금 문제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 출석 교인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혀 교회를 떠나게 했으며 특히 그 동안 불신자인 배우자나 자녀 혹은 친구들의 전도를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한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목사의 위선적인 상황을 지켜보던 불신자들에게 “목사도 그러는데…” 하며 왜 교회에 다녀야 되냐는 등의 변명거리를 제공했다. (필자인 나 또한 밑줄 치며 읽었던 그의 집필 도서를 전부 갖다 버렸다.)

“영혼의 밥상 위에 올라온 따뜻한 흰쌀밥 한 공기.”

목사님의 설교를 ‘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설교는 매일 반복되지만 결코 질리지 않고, 듣는 이의 마음을 채워주며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기본이자 중심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유하자면 성경 말씀은 쌀이다. 이 말씀이라는 본질에서 모든 설교가 시작된다. 목사님의 해석과 적용은 솥에서 정성껏 갓 지어내는 밥과 같다. 말씀을 삶에 맞게 잘 풀어주고, 소화되기 쉽게

해주는 것이다. 기도와 축복의 말씀은 밥 위에 뿌려진 깨소금이나 김처럼 은은하게 감동을 더한다. 어떤 설교는 고슬고슬한 밥처럼, 또 어떤 설교는 죽처럼 부드럽게 다가오기도 한다.

한마디로 설교는 영혼을 위한 끼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며 힘을 내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맛있는 밥맛 있는 것은 아니다. 고루하고 지루하며 경직된 설교는 설익은 밥과 같아서, 듣는 성도들에게는 반찬조차 그 밥에 그 나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따분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이유 중 하나를 감히 생각해보자면, 목사님도 목회보다 가정이 먼저여야 할 사람일지 모르는 것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목사님들이 있는 현실 속에서, 목회자의 가정생활이 순탄하지 못하다면 성도들에게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평신도 최고의 직급인 장로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장로님들이 나쁜 언행으로 성도들은 물론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될 것이다. 그 상처는 개인적인 신앙의 혼란이나 실망에 그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분열, 교회에 대한 외부인의 부정적 인식을 안겨줄 수 있으며 오랫동안 가슴속에 한(恨)으로 남을 수 있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따뜻한 밥상

현재 미국에서는 국내 순수한 기술력과 자본으로 10년에 걸쳐 제작한 3D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가 엄청난 흥행을 일으키고 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뛰어넘는 한국 영화 사상 초유의 성과이다.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이 영화가 7월 국내에서도 개봉한다고 하니 그 소식만으로도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큰 잔칫날이 다가오는 듯하다. 이 영화는 잘 차려진 따뜻한 밥상처럼,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감동과 은혜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고, 감동의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된다.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 학생들의 단체관람은 현실적으로 힘들더라도, 각 교회의 주일학교와 학생부가 함께 관람하기를 바란다.)

요한복음 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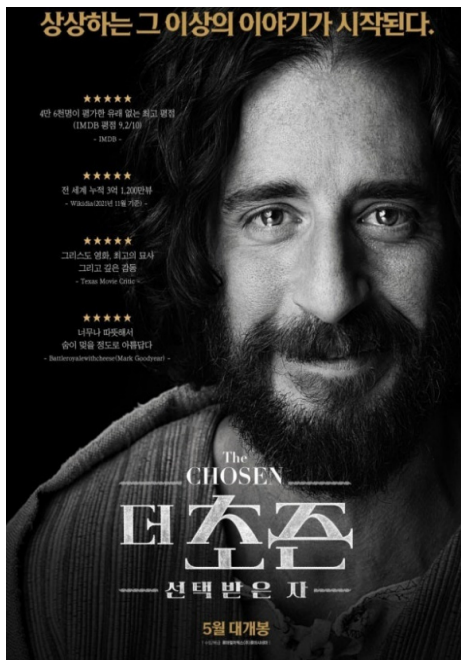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더 초즌 The Chosen : 선택받은 자

김춘배 화백
(성시신문 편집위원)

청각장애인인 필자에게 영화는 책과 더불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다. 외국 영화의 경우 대부분 번역 자막 덕분에 일반인과 다를 없이 감상할 수 있지만, ‘배리어프리’라는 한글 자막이 지원되면서 이제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도 한결 더 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언제부터인가 TV 방송, 특히 예능 프로그램의 화면들이 온통 자막으로 도배되고 있어 도리어 자막 공해가 아닐까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필자로서는 이렇게 편한 세상에 살고 있음이 감사할 따름이다.

말씀의 이해와 깨달음에는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 매체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을 ‘비유’로 설교하셨고, 구약의 대서사도 문학적 표현으로 가득한 것으로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내게 영화와 관련된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건 아닐까 싶다. 2007년 <왕중왕>을 시작으로 15년 넘게 성시신문에 기독교 영화 관련 소개 기사를 기고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취재를 위한 기독교 영화들이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제공되고 있음은 실로 놀라운 은혜이다. 주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토록 좋은 영화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해 주시는지 내심 놀라울 때가 많다. 십여 년 전보다 인터넷과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했음에도, 기독교 영화는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OTT, 즉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이나 유튜브에도 수많은 기독교 영화와 성경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페이스북과 더불어 인스타그램의 동영상 서비스에도 신앙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재들이 소개되고 있다.



그 인스타그램 활동 중에 정말 놀라운 미국 드라마를 만나게 되었으니, 바로 지금 소개하려는 <더 초즌>(The Chosen), 곧 ‘선택받은 자’이다! 이미 2017년 제작되기 시작했다는데, 요즘에도 종편 TV 기독교 채널인 CTS에서 방영되고 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 단일 드라마로 유일한지는 모르겠지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앱에 들어가 보니 시즌7까지 계획되어 있는 듯하며, 현재 4시즌까지 제작 및 공개되어 있다. 덕분에 올봄 두어 달 동안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누릴 수 있었다.

각 시즌은 편당 1시간 내외 분량의 에피소드 7~8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시즌 첫 에피소드는 니고데모와 마태를 중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며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일들과 그 가운데 제자들을 비롯한 인물들의 내적 갈등과 여러 사연이 깊이 있게 조명된다. 드라마를 보노라면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동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이 드라마는 워낙 방대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제작되었기에 한 번에 소개하

기 어려운 콘텐츠라, 매 시즌을 각기 다른 시기에 소개할까도 고민했지만, 그런 문제는 나중에 고민하기로 하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소개로 시작할까 한다.

헐리우드 영화 스타일에 길들여진 정서로는 다소 생경하고, 세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더욱 친밀하고 깊은 매력이 있어 저절로 예수님을 따라 걷는 듯한 리얼리즘까지 전해진다. 'The Chosen' 앱은 OTT 방식으로 제공되어, 넷플릭스처럼 이어보기 기능도 지원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시즌 4까지는 한글 자막과 한국어 더빙이 완벽하게 제공된다.(자원자들이 60여개 언어로 번역했다고 한다.)

<https://watch.thechosen.tv/>에 접속하면 공식 홈페이지가 열리며(아래 QR코드로도 접속이 가능하다), 설명과 소개가 풍부하게 제공된다. 작년에는 115분짜리 영화로도 개봉된 것 같다. 전 세계 9억 명이 시청하고 관람할 정도로 놀라운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드라마는 달라스 켄킨스가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했으며, 예수님 역은 조나단 로미가 맡아 강하고 부드러운면서도 친밀감 가득한 카리스마를 연기했다.

이 드라마는 예수님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 않는다. 공생애 사역을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잘 묘사하는 동시에, 제자들을 비롯해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포커스를 맞추어 감동을 더한다. 기존의 예수님 영화들이 다소 고답적이고 피상적인 묘사에 머물렀다면, <더 초즌>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각 인물들의 깊은 내면과 갈등, 그리고 사연들까지 세밀하게 그려내어 더욱 입체적이고 실제적인 체험을 선사한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모습만이 아니라 친근하고 소박한 캐릭터의 예수님을 함께 담아내기도 했다. 특히 예수님이 백팩을 메고 제자들과 어울려 다니는 모습은 기존에 보기 어려운 장면으로, 이색적이고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보다 상세한 평가 소개가 올라온 블로그가 있어 QR코드 링크를 함께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더 초즌 블로그



더 초즌 홈페이지



김복동

Salvation 2014-10

248.3×147.5cm
oil on canvas & wood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베드로(Caravaggio/1600-1601/oil on canvas/산타마리아 델 보폴로 미술관소장)

예수의 공생애 기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며 모든 것을 목도했던 베드로는, 십자가의 절박한 공포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인간적인 사람였다. 카라바조는 바로 그 인간적인 모습을 표현하려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 사건 이후 베드로는 평생 주님을 증거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표정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삶의 여정은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은 완전할 수 없으며 결국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겸손하게 그 분께 주인 된 권한을 맡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미생을 완생으로 만드는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작가노트 中)





여름, 마음과 몸을 지키는 지혜

이시형 원장(이시형 한의원)

여름은 햇살이 풍성하고 생명이 자라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쉽게 지치고 허약해지기 쉽습니다. 조선의 명의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여름을 “심(心)의 계절”로 보고, 이 시기에는 심장과 정신을 특별히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장은 피를 순환시키고 정신을 주관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는 심장이 쉽게 피로 해지며, 그로 인해 불면, 가슴 두근거림, 짜증, 불안감 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위를 피하되, 마음을 다스리고 조용히 심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여름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묵상하며 심령을 돌보는 것이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 자주 찾게 되는 찬 음식과 냉방은 오히려 몸속에 냉기를 들이게 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여름에 찬 기운이 속으로 들어가면, 가을과 겨울에 병이 된다”고 하여, 여름의 냉기에 대한 경계를 강조합니다. 겉은 더우나 속은 쉽게 허약해지는 여름철에는, 지나친 냉기를 피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름철 건강차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보리차 : 소화에 부담이 없고 열을 식혀주며, 탈수 예방에도 좋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매일 물처럼 마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구기자차 : 눈과 심장에 좋은 약재로, 정신 안정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따뜻하게 우려내어 마시면 좋습니다.

매실차 : 소화를 돕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탁월합니다.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오미자차 : 《동의보감》에서는 여름철에 오미자를 늘 마시어 오장의 기운을 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갈증을 멎게 하고 변열을 없애며 숙취 해소와 기침, 숨 가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수박즙 : 찬 성질이 있으나, 더운 날에 한두 잔 마시면 열을 식히고 이뇨 작용을 돕습니다. 단, 몸이 찬 체질이라면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들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절의 질서 속에서, 우리의 몸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올여름, 몸과 마음을 조급하게 몰아세우기보다, 조금 느리게 숨 쉬고,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는 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속의 책

박도준 목사(하늘뜻이룸교회, 글 익는 마을 독서모임)

(글 익는 마을 : 예수교장로연합회 통합 소속 춘천지역 목회자 5명이 매달 1권씩 선정된 책을 읽고 발제하고 나누는 모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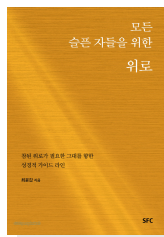
최윤갑 교수의 ‘모든 슬픈 자들을 위한 위로’

‘모든 슬픈 자들을 위한 위로’는 고통과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나 일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특히 이사야서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의 근원과 그 의미를 탐구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위로가 단순한 감정적 위안이 아니라, 고통의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저자는 위로의 과정을 ‘눈물을 닦아주는 단계’, ‘상처를 치유하는 단계’,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모든 슬픈 자들을 위한 위로’는 슬픔과 고통에 지친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달하며, 동시에 참된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책입니다.



최종원의 거꾸로 읽는 교회 : 익숙한 역사, 낯선 질문을 던지다

역사학자인 저자의 이 책은 교리와 신학 중심의 연대기적 서술에서 벗어나, 사회와의 상호작용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교회의 역사를 조명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교회를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닌, 시대의 도전 앞에 고뇌하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했던 현실 속의 존재로 그려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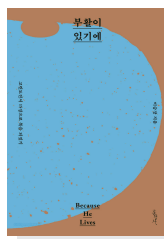
이 책은 ‘성경은 과연 정치와 무관한가?’, ‘자본주의의 발전 속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등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독자의 통념을 흔듭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영광의 순간뿐만 아니라, 권력과 타협하고 사회적 약자를 외면했던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저자는 단순히 과거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의 거울에 비친 교회의 다양한 초상들을 통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을 성찰하게 합니다.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역사적 진실을 직시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미래를 모색하려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복음 되집기

‘부활이 있기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깊이 있게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부활이 왜 우리 신앙의 근간이며 삶의 희망인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자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확실한 소망임을 강조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부활 신앙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확신을 얻고,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부활 복음을 갈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읽독을 강력 추천합니다



성시 25년 7월/성경퍼즐퀴즈 : 가족들과 함께 맞춰보세요

참여방법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당첨자 5명에게 소정의 상품(상품권 1매)을 보내드립니다.

문자. (010-9698-2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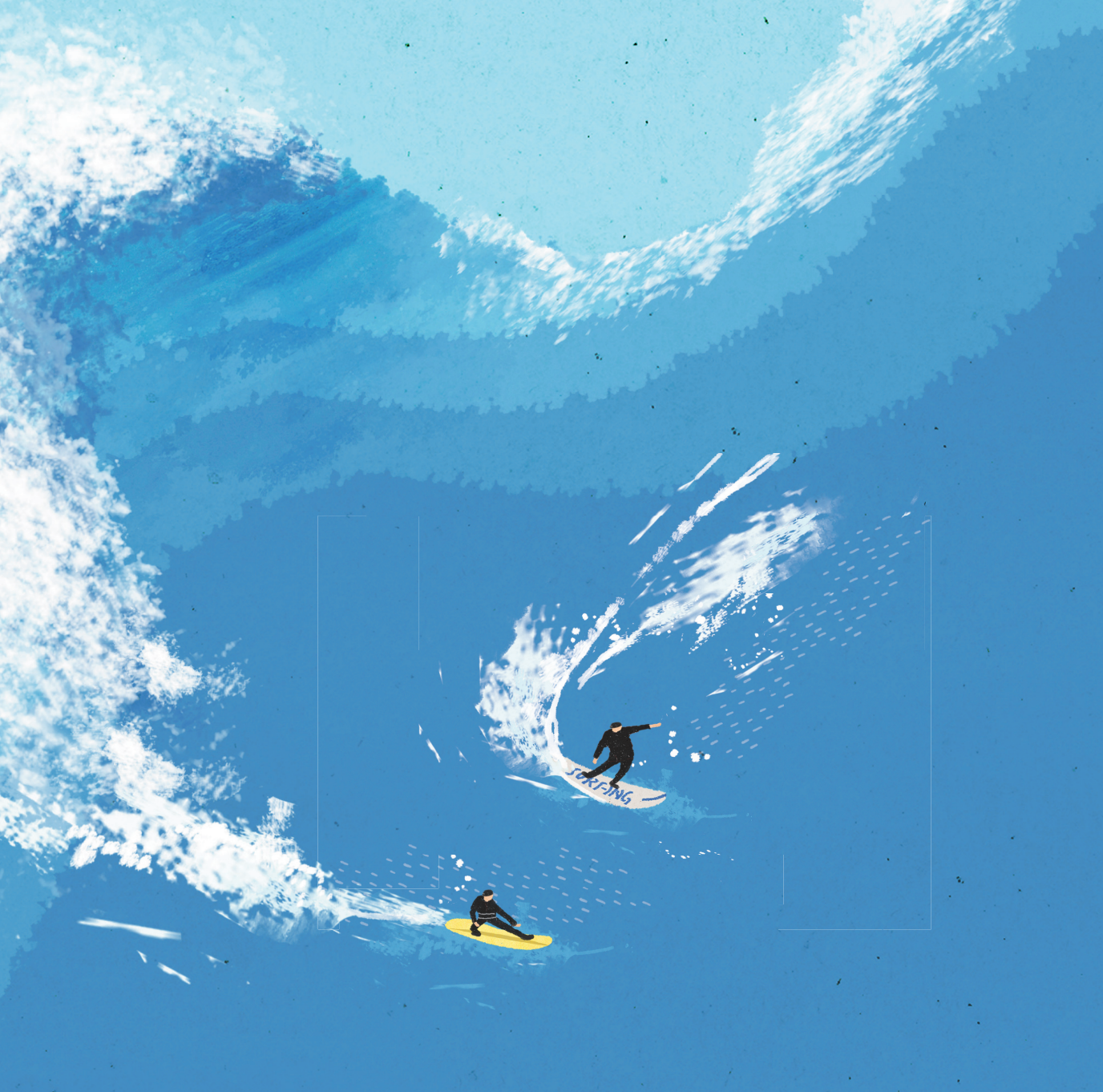
3			4		
	3				
2			1	4	5
			6		
			5		

* 가로 힌트 *

1. 병든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어느 제자를 부르신후 하신 말씀인가요?(마9장/눅5장)
2.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의 고향은?(왕상11장)
3.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우물의 이름은?(요4장)
4. 천지창조는 언제되었나??(창1장)
5. 칠월 일일부터 시작되는 절기는?(민29장)

* 세로 힌트 *

1. 베드로와 바벨론에 전도한 사람은?(벰전5장)
2. 보냄을 받았다는 뜻은?(요9장)
3. 헤만의 열 아홉째 아들은?(대상25장)
4. 아굴이 잠언을 가르친 아들의 이름은?(잠30장)
5. 광야생활을 기억하며 보내는 절기는?(레23장)



춘천시선교대회

2025년 9월 7일 ~ 13일